

소비자물가 다시 3%대 올라서나...내수 회복세 관심

통계청, 6일 '2024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오늘 올해 첫 산업활동 동향 산업지표 개선 주목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도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섰을지 주목된다.

2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6일 '2024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세와 맞물려 지난해 7월(2.3%) 이후 6개월 만에 2대(2.8%)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면서 물가지수 품목 중 비중이 큰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5.0% 하락한 영향이 반영돼 물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하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의 상승률 보이면서 둔화된 물가 상승 폭에 대한 체감도는 떨어졌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4%나 뛰며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 사과와 배 등 과일류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면서 농산물 물가는 15.4% 올랐다.

지난달 물가 여건도 녹록치 않았다. 설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늘어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요 성수품 등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지원으로 정책 노력을 지속했지만 상승세는 여전했다.

여기에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진입하면서 기름값이 상승 전환하는 등 물가를 자극할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9일 주재한 물가관계자회의에서 "2월 물가 상승률은 1월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3%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대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농산물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에 앞서 4일에는 올해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내놓는다.

작년 12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3%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연말 특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소매판매는 0.8%



줄어 한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 흐름에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수권기자



삼성전자서비스,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

삼성전자서비스는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고객이 에어컨을 자가 점검 후 이상을 발견해 사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엔지니어에게 체계적인 제품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사전점검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출장비를 포함한 공임비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이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 신청 전 선행해야 할 자가 점검 항목은 ▲전원 연결 상태 확인 ▲실외기 주변 정리 정돈 ▲실내기 먼지 필터 세척 ▲에

어컨 냉방 시험 가동 ▲리모컨 동작 확인 등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여름을 대비해 엔지니어가 냉방, TV 등 가전제품 출장서비스로 방문했을 때 에어컨을 추가로 점검해 주는 '플러스점검 서비스'도 병행 시행한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고객이 삼성전자 에어컨과 함께 여름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 사용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이케아코리아, 한달동안 '스웨덴 와플 데이'

IKEA Family 멤버 & IKEA Business Network 멤버

함께 와플 데이를 기념해요!

스웨덴 사람들은 와플을 정말 좋아해서 3월 25일 와플 데이를 기념해요! 스웨덴 푸드 마켓에서 Våffeldagen 보플로르 와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31일

이번 행사는 매년 3월 25일을 와플 데일로 기념하는 스웨덴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케아 코리아 관계자는 "스웨덴의 인기 음식 중 하나인 와플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케아의 뿌리인 스웨덴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입안 가득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스웨덴 와플을 더 낮은 가격으로 만나고 나만의 와플 레시피를 만드는 특별함도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케아 코리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휴머니즘 제품과 함께 푸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이케아에서는 돈가스, 김치볶음밥 외에도 미트볼, 시나몬 번 등 스웨덴 문화가 담긴 메뉴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오유나기자

화이트데이에 봄 웨딩시즌까지 다가온다...명품 가격 '요동'

선물과 쇼핑 수요 늘어나는 '시즌 특수' 노력



해의 명품 브랜드들이 올해 초부터 국내에서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가운데, 봄철 결혼 성수기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또다시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선물과 쇼핑 수요가 늘어나는 '시즌 특수'를 노리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3일 명품 업계에 따르면 루이비통(Louis Vuitton)은 지난달 19일 기습적으로 일부 가방 제품의 가격을 5% 인박 올렸다.

대표 제품으로 '네오노에BB'는 기존 258만 원에서 274만 원으로 6.2%, '볼로뉴'는 기존 314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5.1% 뛰었다.

이에 앞서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는 새해 벽두부터 신발 제품의 가격을 최대 44%까지 올리더니 주요 인기 가방 제품에 대한 가격을 약 10~15% 가량 올렸다.

이후에는 주요 인기 워치 제품에 대한 가격이 10% 인박으로 인상됐다.

한 해에 가격을 두 차례 이상 올리는 'N차 인상'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샤넬(CHANEL)도 지난 1일 뷰티 제품의 가격을 5~10% 인상했다.

이른바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가운데 샤넬만 가방 인상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조만간 가방 가격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디올(Dior)은 지난달 10일 인기 제품인 로즈드방, 디올아무르, 쟈디올 등 고가 라인의 귀걸이·팔찌·반지 등의 가격을 최대 12% 넘게 인상했다.

명품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앤코(TIFFANY&Co.)는 지난달 11일, 5% 인박 가격을 올리더니 같은 달 25일에는 국내 면세점

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일부 제품의 가격을 4% 인박으로 올리기도 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보유한 코스메틱 브랜드 '겔랑(GUERLAIN)'도 지난 1일 일부 제품의 가격을 4% 인박으로 올렸다.

프랑스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BOUCHERON)'은 발렌타인 데이를 앞둔 지난 7일 국내에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5% 인박의 가격 인상을 가져갔다.

대표적으로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약혼 반지 '파트로 블랙 에디션 웨딩 밴드'는 299만 원에서 321만 원으로 7.4% 올랐다.

업계에선 일부 명품 브랜드들이 다음 달 화이트데이와 결혼 성수기를 앞둔 만큼 조만간 가격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프랑스 명품 주얼리 브랜드 쇼메(CHAUMET)나 프랑스 명품 주얼리 브랜드 프레드(FRED), 스위스 명품 시계·주얼리 브랜드 쇼파르(Chopard) 등이 빠르면 3월 중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하이 이렇자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내 명품 부티크 뿐만 아니라 캄카스백화점 등 민트급(신품에 준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명품 리셀 상품) 전문점 등에도 서둘러 명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한 명품 업계 관계자는 "매해 이맘때 주얼리를 포함한 명품 브랜드들의 줄인상이 이어졌다"며 "아무래도 봄철 웨딩 시즌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가격 조정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슬비기자

현대차, 美서 역대 2월 최고 판매량 기록...전년비 6% ↑

현대자동차의 지난달 미국 판매량이 2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1일(현지시간) 현대차 미국법인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6만341대로, 2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친환경차 판매량이 7% 증가하는 등 실적을 견인했다.

투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280%, 투싼 하이브리드(HEV)가 29%, 코나 일렉트릭(EV)이 15% 각각 증가했다. 투싼은 8%, 팰리세이드는 16% 판매량이 늘었다.

현대차의 2월 소매판매는 5만531대로, 전년 대비 5% 증가하며 이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의 랜디 파커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와 PHEV 판매 실적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모델들이 인정 받은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지난달 미국에서 5만9059대를

친환경차 7% 증가하며 실적 견인...투싼 PHEV 280% ↑ 기아차 2월 5만9059대 판매...SUV가 판매량 76% 차지



판매했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2월 전체 판매량의 76%를 차지했다.

특히 카니발(48%), 스포티지(18%), 포르테(8%) 등 3개 모델이 2월 기준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다.

변영익기자